

# ‘숨’ 멎는 비주얼... KG모빌리티, 고급짐·가성비 다 잡았다

렉스턴 ‘뉴 아레나’·‘스포츠&칸 쿨멘’ 실내 디자인·일부 외관 부분 변경  
 웅장한 실내와 하이엔드 모델  
 수평적 디자인·감성적 가치 갖춰



KG모빌리티 렉스턴 뉴 아레나 정측면.

‘SUV 명가’ 재건에 나선 KG모빌리티가 렉스턴 브랜드를 새롭게 개편했다. 실내 디자인과 일부 외관 부분 변경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KG모빌리티는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렉스턴 뉴 아레나 렉스턴 스포츠 쿨멘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정통 SUV의 가치를 담은 ‘렉스턴 뉴 아레나’와 픽업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광호 KG모빌리티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번에 공개한 두 제품은 내가 꿈꾸던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해 줄 동반자로 함께하는데 부족함 없는 상품성과 감성적 가치를 갖춰 변화될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턴 브랜드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 인테리어다. KG모빌리티의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파워드 바이 터프니스)’의 구조적인 강인함과

모던한 조형미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활용하여 부드럽고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감성적 가치를 담았다.

‘렉스턴 뉴 아레나’는 왕가(Rex)의 품격(Tone)을 의미하는 렉스턴에 대형 전시장과 공연장을 의미하는 ‘아레나’를 덧붙여, 현대적이고 웅장한 실내의 디자인을 강조했다. 렉스턴 뉴 아레나 외관은 새로운 다이아몬드 세이프 그릴과 다이내믹 웰컴·굿바이 라이팅이 적용된 4빔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순차적으로 점멸되는 시퀀셜 다이내믹 LED 턴시그널 램프를 장착했다.

후면은 가로로 배치된 T자 형상의 LED 리어램프와 루프스포일러 일체형 보조동력램프, 듀얼 테일파이프 가니시(장식)가 조화돼 세련미를 더했다. 휠은 새롭게 디자인한 20인치 스포터링 휠이 장착됐다. 특히 더 블랙 모델은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휠아치&도어 가니시, 뉴 디자인 20인치 스포터링 다크 휠 등 전용 아이템을 적용해 테마를 강조했다.

렉스턴 뉴 아레나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수평 콘셉트를 활용하여 편안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 콘 내비게이션, 날렵한 에어 벤트, 터치



렉스턴 뉴 아레나 클래식 베이지 인테리어.

식 공조컨트롤러 등을 장착했다.

렉스턴 뉴 아레나의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으로 엔진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일상영역(1600~2600rpm)에서 최대토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8단 자동변속기는 변속감이 부드럽고 폭넓은 기어비로 주행 시 효율적인 RPM을 유지해 준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6km/L이다. 렉스턴 뉴 아레나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프리미엄 3979만 ▲노블레스 4553만 ▲더 블랙 5173만 원이다.

스포츠&칸 쿨멘의 가장 큰 변화는 외관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변화다. 렉스턴 뉴 아레나 실내 인테리어 콘셉트를 함께 공유한 스포츠&칸 쿨멘은 기존 인테리어의 복잡한 형태를 최소화한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활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개방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모던하게 완성했다.

운전석 전면의 각종 스위치들은 인체 공학적이고 직관적으로 배열하여 조작 편의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과 공조컨트롤러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터치식을 적용하여 각종 정보의 시인성은 물론 조작성과 편의성까지 극대화했다.

스포츠&칸 쿨멘의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이며, 글로벌 메이커를 통해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신(AISIN AW)사의 6단 자동변속기는 뛰어난 동력전달 성능과 내구성이 장점이다.

신형 스포츠 쿨멘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프레스티지 3478만원 ▲노블레스 3831만원이며, 스포츠 칸 쿨멘은 ▲프레스티지 3709만원 ▲노블레스 404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에이서 “3년내 韓 외산PC 톱3 진입 할 것”

㈜한성과 국내 공식 파트너 계약  
 주요 제품 공급 독점 총판 체결  
 신제품·서비스 강화해 공략



에이서 노트북 신제품 ‘스위프트 고 16’.

/허정윤 기자

에이서(Acer)가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한국 PC 시장을 다시 공략한다.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에이서 지사에서 가장 ‘젊은 피’를 대표로 수혈하며 공격적인 태세를 갖출 전망이다.

에이서는 3일 서울 잠충동 엠베스터 서울 풀만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설명회와 에이서 한국 법인의 포부를 밝혔다.

특히 웨인 니엔(Wayne Nien) 에이서 한국법인 대표는 에이서가 ‘글로벌 톱5 PC 브랜드’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쌓아온 본사의 경험과 투자,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에이서는 대만 신베이시에 본사 둔 글로벌 PC 제조사로 1976년 설립됐다. 1996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2001년 한국에서 PC 사

업을 철수해 국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재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9만 5000개 이상의 리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PC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에이서는 이후 2009년 한국 시장에 재진출, 일본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10월 ㈜한성과 국내 고객서비스 공식 파트너 계약 및 주요 제품 공급에 대한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한국 고객 공략에 나섰다.

웨인 니엔 대표는 “국내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으로 3년 이내 국내 외산 브랜드 톱3에 진입하겠다”고 말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스위프트 고 16’을 필두로 신제품 소개와 Q&A 세션을 이어갔다.

웨인 니엔 대표는 1991년생으로 과거적인 인사로 선임 이후부터 줄곧 관심을 끌어왔다. 그는 “에이서는 가성비 노트북으로 2030 고객들, 직장인 위주 공략을 노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 법인을 다시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에이서 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2019년부터 준비한 한국 법인 설립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웨인 대표는 “국내 파트너사인 한성직영점 통해 전국에 100개 넘게 서비스 센터 확장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대한항공, 운항비용 상승에 영업이익 절반 ‘뚝’

1분기 전년비 47% 감소 4150억

대한항공이 1분기 여객 수요 회복으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유류비와 운항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한항공은 3일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조 195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4150억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 수요의 꾸준한 회복세 및 화물 사업의 지속적 수익 창출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1분기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한 1조 7777억원을 기록했다. 여객 수요 호조를 바탕으로 공급 및 수송이 꾸준히 회복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수준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며, 여객 사업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조 485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여객기 하부 화물칸(Belly Cargo) 공급 증가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2분기에는 글로벌 항공 시장 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방역 규제 등 운항 및 이동 제약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여객 수요가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여객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물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감으로 항공화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장 수급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 적기 대응하고 적극적 신규 수요 개발을 통해 수익 기반을 지속 확장할 예정”이라며 “여객기 복항 목적지에 맞는 선제적 판매 전략 수립으로 화물 판매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X월드 ‘DJ 페스티벌’ 초청 이벤트

삼성전자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개최되는 ‘202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이하 WDJF)’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갤럭시 in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이하 Galaxy in WDJF)’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Galaxy in WDJF’를 함께 즐길 이벤트를 이번달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현대차, ‘대형 수소트럭’ 북미시장 공략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공개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특화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수소 상용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에서 열리는 북미권 최대의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3’에서 ‘엑시언트(XCIE NT) 수소전기트럭 트랙터’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장거리 운행이 많은 북미 특성에 맞춰 개발된 총중량 37.2톤급 6x4(3개 차축 가운데 2개가 구동되는 방식) 대형 트럭이다. 180kW급 수소연료 전지시스템과 최고 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72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마이카 알람 서비스’ 선보여

LG전자가 주차 중 차량 상태를 스마트폰 뿐 아니라 TV로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LG전자는 3일 ‘마이카 알람 서비스’를 공개했다. KG모빌리티 신차인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렉스턴 뉴 아레나에 처음 탑재된다.

마이카 알람 서비스는 주차 중 차량 정보를 TV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스마트 TV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차된 차에 충격이나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문 열림 사고 등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전달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곁에 두지 않고 TV를 보다가도 주차 차량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커넥티드카 앱을 스마트폰에서 TV로도 확대할 것.

아울러 LG전자는 신차 출시와 계절성 이벤트 등 프로모션 정보, 유용한 콘텐츠 등도 TV로 전달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